

## 건축공간으로서 초고층의 의미

### The Meaning of Super Tall Building as Architectural Space

여영호 /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Yeo Young-Ho

#### 현실

1990년대에 중국과 동남아 등의 아시아권에서 많은 초고층들이 실현되었으며, 지금도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나라들이 있다. 이와 같은 영향 아래 우리나라에서도 초고층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졌으며, 비록 미국의 911 테러에 의하여 초고층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아졌으나 여전히 초고층은 서울과 같은 현대도시의 필수적인 건축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은 다른 일반 건축물 유형에 비하여 건축적인 역사도 짧을 뿐더러 규모에 있어서나 그 기능에 있어서나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혹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담감과 더불어 초고층이 야기할 수 있는 도시 및 사회 환경적인 문제점들이 여러 부분에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해 한국초고층포럼의 국제심포지엄 기간동안 실시한 건축 관련전문인들의 초고층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고층이 현대의 도시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초고층에 의하여 야기될 수도 있는 도시 환경적인 여러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서울이란 도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과 그 가운데서 실현된 몇몇 초고층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현상들을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그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초고층의 현대도시에 대한 건축 공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한다.

#### 초고층과 수직공간

초고층은 자칫 건축시설의 한 용도별 유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 초고층은 박물관이나 학교 혹은 백화점 등과 같은 용도별 특성을 가진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층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실용 가능한 여러 건축적인 잠재력보다는 사무소, 호텔 그리고 아파트와 같은 몇 가지 용도의 기능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비경제적이고 공간적인 융통성이 결여된 건축물로서 혹은 거대한 규모에서 오는 상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게 되는 편견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초고층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층수와 높이에만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초고층에 대한 피상적이고 막연한 생각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현대의 초고층은 건축물의 특정한 시설용도로서 혹은 물리적인 규모에서 지니게 되는 영향력으로서가 아니라 수직으로의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는 새로운 건축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용도의 건축 기능이 수용되든지 간에 초고층에는 수직적인 건축공간 유형으로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수평공간으로만 주로 발전되어온 기존의 건축 공간개념에 대한 수직공간으로서의 변환을 요구하는 신 공간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 공간 개념은 윌리엄 페더슨(William Pedersen)이 언급한 기존의 수평적인 그리드 공간에 대하여 하늘로 무한히 개방된 수직적인 공간의 활용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공간구축에서 보다 더 전환된 미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 초고층과 입체도시

이러한 수직적인 신 공간 개념의 적용은 하이퍼 빌딩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는 약 60억 명으로 간주되는데 의학기술과 사회복지 환경의 발전으로 인구는 더욱 증가 일로에 있으며, 특히 현대의 도시는 늘어나는 거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처럼 미래에 부족하게 될 거주공간을 위하여 대체공간으로서 지하공간과 수중공간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미래의 공간을 위하여 건축가 파올로 솔레리나 일본의 도시기반공단과 같은 도시공간 연구자들은 하이퍼 빌딩이란 신 개념의 건축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저 층의 저밀도 분산에 따른 전통적인 수평 배치는 건축물과 자연환경과의 공존이 실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평으로 광범위하게 배치된 건축물에 의하여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가 침식되며, 또한 건축물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에 따른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낭비가 과도하게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직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전통적인 수평 거주공간의 수직 거주공간으로의 변환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지상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을 보호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창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기존의 평면도시의 다양한 공간이 수직으로 집적된 입체도시 공간으로의 변환을 의미하고 있다.

### 초고층의 가능성

이러한 하이퍼 빌딩의 개념에서 초고층 수직공간의 미래적인 적용 방향을 가능할 수가 있다. 다만 하이퍼 빌딩은 실현되기에는 아직은 먼 장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초고층의 수직공간 개념은 현재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것이며,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수직공간 개념은 초고층이 이미 지니고 있는 보편화된 건축적인 특성이지만, 거주공간 확보로서 수평적인 건축공간 개발이 야기한 많은 도시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출발점으로서 새롭게 초고층을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정보 집약과 도시기능의 효율성 그리고 자연환경의 보존이 수직공간 개발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는 수직공간에 가능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다양한 공간 기능들을 수직공간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초고층의 새로운 건축적 가능성을 시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Le Corbusier의 Immeuble-villas 등 여러 집합주택에 계획된 공중정원과 건축가 Ken Yeang에 의하여 시도되는 고층 생태공간의 적용은 초고층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초고층은 기존과 같은 수평공간의 활용이 아니라 무한한 수직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고층부와 저층부 상호간의 개방을 통하여 폐쇄적이지 않은 열린 공간을 마련할 수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상에만 한정되어 오던 전통적인 조경도 초고층의 수직공간에 응용됨으로써 초고층은 그 자체가 공중정원이 되는 새로운 건축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가지며 실현되는 초고층은 다른 어떠한 건물보다도 건축적, 도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 초고층화를 통한 신공간 개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내재되어 왔던 도시 및 건축적인 제반 현상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대의 도시공간에 새로운 건축적 비전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초고층의 수직공간 개념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 건축적인 상황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였던 여러 사실들이 실제적인 환경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미래의 거주 환경을 위하여 도시 내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축공간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첫 번째가 수직 공간의 신 공간개념으로서의 초고층화라고 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초고층에 대한 수직공간의 개념을 새로이 적용함으로써 평면적인 종래의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으로 변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도시와 사회적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초고층이 단순히 공간확보를 위한 건축물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거주공간에 대한 신 공간 개념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막연한 의구심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초고층 건축은 더 이상 사회나 국가의 단순한 상징성이나 공간확보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현대도시가 직면한 실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건축적 사고와 접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